노태우, 전두환과 '바늘과 실'…'5공 청산' 계기 '앙금'

2인자·후계자로 지명 권력 바통…이승과는 먼저 작별

12·12 쿠데타 9사단 중앙청 출동 군부 권력장악 기여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함으로써 60여 년에 걸친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애증 관계도 끝이 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평생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길고도 질긴 인연을 맺어왔다.

동료로 출발해 1979년 12·12 쿠데타로 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최고 통치자와 2인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은 비록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기는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돼 권력의 바통까지 이어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전 전 대통령의 길을 밟아왔지만, 이승과의 작별은 먼저 고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고교 때부터 출발한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의 전신인 대구공업중을 거쳐 1951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한 살 많은 전 전 대통령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대구에 정착해 같은 해 대구공고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생으로 다시 만난다. 노 전 대통령은 생도 시절 럭비부에서, 전 전 대통령은 축구부에서 활동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을 시작으로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전 전 대통령이 거쳐간 자리를 이어받았다.

12·12 쿠데타 당시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9사단 병력을 중앙청으로 출동시켜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는 신군부의 권력장악 과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는 한 해전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 전 대통령의 권고로 젊음을 바쳤던 군문을 떠나 전두환 정권에 합류했다.

전 전 대통령의 튼튼한 신임을 바탕으로 정무장관에서 시작해 초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 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민정당 대표위원,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 등을 거치며 2인자로서의 터를 닦았다.

1987년에는 전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으며, 직선제 개헌 약속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격적인 6·29 선언과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른바 '3김(金)'을 따돌리고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5공 청산'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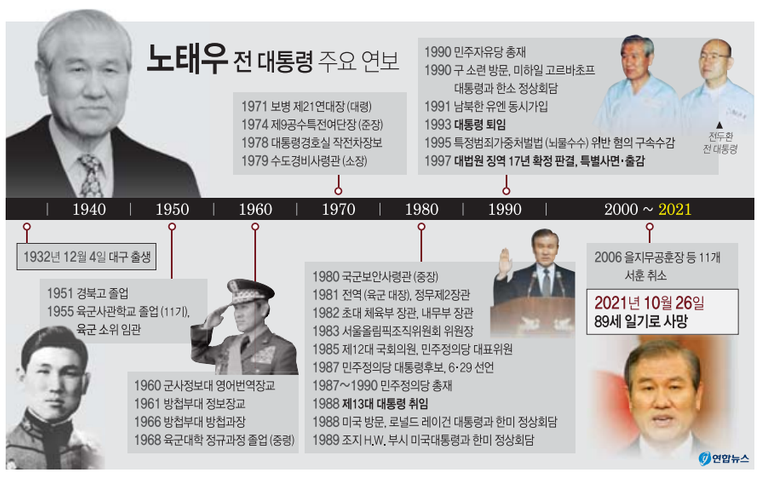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요구가 빗발치자 노 전 대통령은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권고했고, 전 전 대통령 측은 백담사를 택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1월 16일과 같은 해 12월 3일 나란히 구속돼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당시 임기 말이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먼저 검찰 소환에 응해 구속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태우가 일을 그르쳤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5·18 선고공판 출석한 노태우 26일 숨진 노태우 전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전두환씨 등 당시 주역들과 출석해있다.



'5·18' 사죄 없이 떠나 멀어진 용서…"국립묘지 반대"

"진상규명 협조 않은 채 아들 재헌씨 사죄도 보여주기식 반성 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끝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5·18 관계자를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에선 개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지적했다.

특히 아들 재헌 씨가 노씨를 대신해 광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한때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후 재헌 씨의 석연찮은 행보에 5일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반성 쇼"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재헌 씨의 사죄 역시 노씨 본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게 5월 단체의 생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컸다.

5·18을 왜곡한 노씨의 회고록을 수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등 진상 규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5·18 관계자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씨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해 자신이 분명히 고백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씨가 숨졌다고 해서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미 5월 어머니집 사무총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의미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시각에서 보면 학살 주범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씨가 진정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병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노씨를 위해 우리가 직접 병문안을 가 만날 의향도 있다는 마음을 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죽기 전에 사죄가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상 국립묘지 안장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방외교·남북 유엔 동시가입…탈냉전 외교 재지평

공산권과 첫 외교관계, 남북관계 물꼬…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도

26일 사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탈냉전 시대와 겹친 재임 기간에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첫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도 쌓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취임사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해나갔다.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물론 1991년 8월 알바니아까지 동유럽 7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1990년 6월 소련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전격 수교했고, 1992년 8월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1989년 9월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이는 1991년 말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또 1991년에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이런 북방외교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남북간 교류 협력을 증진했고 한중간 국교 수립으로 중국과 사회·문화·경제적 교류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구인광고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 평일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5시
○ 4대보험 적용
○ 급여 : 면접 후 결정
○ 나이 제한 없음
광주 소니 서비스 센터
062) 522-2000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JM 채권추심 전문법인
(주)제이엠신용정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린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